

안재홍 목사, 서귀포시민의 책임기 운동 사례 발표

출판협 주최, 문화관광부 후원 독서진흥세미나에서



대한출판협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진흥재단이 후원하는 독서진흥세미나가 지난 6월 19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 본 교단 제주지교회 안재홍 목사(한남교회 담임)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지난 10여년간의 서귀포시민의 책임기 운동사례를 발표했다.

출판, 도서관, 독서단체가 합심해 매년 개최해온 독서진흥세미나에서는 올해의 화두로 '지역사회 독서환경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협력 사례와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책과 독서를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다.

안재홍 목사는 그동안 제주지역사회를 섬기고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독서운동을 시작하여 오늘의 서귀포시민의 책임기 운동으로 확산시켜 지역사회와 유관단체들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9월에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안재홍 목사는 지역협동조합 '제주살레'를 만들어 귀농귀촌의 성공적 안착과 마을단위 기업을 일으키는 모범적 케이스로 선보여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빛과 소금의 감당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의 사역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사설

자유민주교육 위기, 누가 구할 수 있나?

6.4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全敎組) 깃발을 지녔거나 전(前)전교조 성향의 후보들이 17곳 가운데 13곳에 당선되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718만 명의 84%가 이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우파의 분열결과 가져온 우리 사회 모습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할 때 총지 안 받기 같은 운동으로 교육계에 세바람을 불어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한 뒤부터는 국가보안법 폐지, 광우병 촛불 집회 같은 정치·이념 투쟁에 몰두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중학생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하는가 하면,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 전교조 출신 또는 좌파 정당경력자 출신 교육감 당선자들은 당선 직후 취임도 하기 전에 단합모임을 갖고 향후 전국적인 교육정책 공동보조를 방향으로 정하고 좌파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전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강화, 이른바 혁신학교 강력추진 등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좌파 진보 이념에 입각한 역사 교과서를

지체 편성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겠다고 까지 하고 있다. 이들은 당선 되자마자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교조법외노조 판결을 반대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는 탈법 행위까지 자행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전교조의 행태에 맞서서 이 나라의 자라는 청소년들을 진정한 인간주의 교육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교육과 국가 정체성 교육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오늘 한국의 사회상을 볼 때 과연 누가 앞장서야 할 것인가? 전국의 6만 교회와 성도들이 나서야 한다.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교회교육이야말로 오늘 한국의 '전교조 교육 전하'에 맞서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을 진정한 인간애와 자유 민주주의의 질서 의식으로 지킬 수 있는 최후 보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월 17일은 때마침 제66주년 제헌절이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법 질서를 준수하라고 가르쳐야 마땅하거늘 스스로 국법 질서를 짓밟고 탈법·위법을 일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교회학교가 여름행사로 매우 분주한 계절이 왔다. 교육이야 항상 중요하지만 여름철이 더욱 분주한 것은 학교생활에 쫓겨 틈이 없는 아이들에게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인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초·중·고 여름방학이 일제히 시작된다. 세상이 혼돈하여 온갖 유혹과 도박된 가치관이 난무하는 세태에 우리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 중 잠시라도 시간을 아껴 교회에서 올바른 인격양성을 위한 각성의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힘이 필요하다.

교회학교 신앙훈련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차세대 신앙인들을 세우기 위한 준비인 만큼 결코 경제행사로 그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된 교육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강화를 받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모세와 여호수아나 다윗과 그의 친구들같이 오직 복음을 위해 일생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올바른 신앙교육이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본격적으로 여름성경학교, 청소년

캠프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회학교 여름방학 특별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교단은 청소년지역 전문가들을 감시하여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야심찬 청소년 비전캠프를 이어간다. 제2회 중고등부연합성경회를 7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2박 3일간 청정지역 강원도 평창 밸리수영관에서 개최한다.

혼돈한 시대상을 직시하여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교회 청소년캠프에서는 성경학습과 신앙교육에 주력하는 물론,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도 고취시키는 기회로 삼는 데함이 없는 스마트한 비전캠프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풍성해진다. 해가 갈수록 교회학교 교육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충성해야 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잠22:6)

'제7차 6.25 상기 구국금식 통회기도회' 개최

민족복음화여성운동본부 회원들, 동족 분단의 아픔 안고 금식 기도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여성운동본부가 지난날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박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7차 6.25상기 구국금식 통회기도회'를 주며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받으소서, 주여!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단 9:18-19)란 주제로 개최했다.

제1부 예배는 정영숙 권사(여의도침례교회)의 사회로 주선한 교수(교분)가 대외메시지, 최선자 권사(예능교회)가 기도회 취지문, 대표회장 김정숙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김 목사는 환영사에서 "64년 전의 그 때를 돌이켜보면 아찔한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 우리 정부는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 앞에 힘없이 밀려서 전쟁발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낙동강 전투를 마지막 보루로 사수하는 우리 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며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이영주 목사(강사단장), 박금순 목사(상임회장), 한경희 목사(총부장사단장), 김경호 목사(서기)는 간구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명숙 목사(상임회장)가 "우리는 민족을 위해 선택된 기도의 용사들"이라며 구호를 제정했다.



임은선 목사(총괄본부장)의 대표기도, 정숙호 목사(강사단장)의 성경봉독, 유순임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총재)가 '주여! 들으소서(단 9:18-19)'라는 제목의 설교, 반천옥 목사(회계) 헌금기도, 이형자 목사(교분)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구국기도회는 우정은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의경 목사(상임회장), 신숙자 목사(수석

상임회장), 양하옥 목사(강사단장), 정수나 목사(강사단장), 박은혜 목사(강사단장), 박정희 목사(강사단장)가 나라와 민족, 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한국교회, 가정, 다음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기쁨 목사(총장사단장)가 간구와 감사기도, 우정은 목사(사무총장)가 광고하고, 참석자들은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제7차 6.25상기 구국금식 통회기도회'를 마쳤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오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cafe.daum.net/cha2319

세계로교회·기도원

“강원도 횡성 청정지역인 병지방계곡의 수려함과 물맑고 공기좋은 세계로교회·기도원에서 연중 무휴 수련회를 받습니다.”

가. 시설

- (1) 식당 : 150명 동식식가능(유기능식단)
- (2) 숙소 : 독립객실 15개(4-6인실), 성전숙소 등 총 150명 수용가능
- (3) 성전 :
 - 대성전(임 프로젝트 설치) 70평
 - 다니엘 성전 45평
 - * 예배시설 완비(음향, 전자피아노 등)
- (4) 부대시설 : 족구장, 야외테니스장, 동물농장, 구내매점, 바비큐 그릴 설치 등
- (5) 등산로 : 병지방 - 어담산 오토캠핑장까지 약 2-3시간 코스

나. 먹거리

저희 세계로 교회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청정 발효물과 인근 산야에서 채취한 야생 산나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다. 교통

중앙고속도로 횡성IC에서 30분 거리

라. 주변환경

저희 세계로교회는 횡성 어담산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급수의 맑고 수려한 병지방계곡과 국내 유일의 중탄산 온천수인 횡성온천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강원신학교신·편입 학생모집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연중 수시모집(교무처 010-7504-0172)
- 학 제 : 본 교단 총회 4년제 신학교
- 장학/복지 : 이사장 장학금, 회장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기숙사 완비
- 특 전 : 총회 목회대학원 진학, 전도사 자격부여
-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동길 54-91 강원신학교 교무처(세계로교회 내)
- 전 화 : 033-345-2020 (HP 010-7504-0172)
- e-mail : i4499@hamail.net

차충열 목사 · 김복희 목사 내외



cafe.daum.net/cha2319

문의전화 : 033-345-2020, 010-5325-9191(차충열 목사)